

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환경 정화...에코캠페인 '물애그린'

[서희원]



[합천=뉴스시스] 서희원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는 20일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장계저수지에서 합천농협, 수질환경보전회 합동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시설물 친환경 관리를 위한 에코캠페인 '물애GREEN(물애그린)' 행사를 실시했다.

물애그린 환경캠페인은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의 친환경 관리를 목표로 용·배수로 등의 영농폐기물 정화 및 지역민 대상 영농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.

박인식 지사장은 "에코캠페인 물애그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경영 실천과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